



◀인도 지역 불교 개종자들은 제2의 인도불교 중흥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법당에서 입장중인 인도불자들.

되살아나는 인도불교

‘집단개종’ 들불처럼 번져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인도 불교가 재 고향에서 다시 싹을 틔운 것은 지난 1956년. 이제 고작 45년 남짓 된 ‘새내기 종교’이다.

현재 들어와 인도에서 불교를 부흥시키려는 움직임은 1891년 스리랑카의 다르마팔라(Dharmapala) 스님이 설립한 마하보디 협회(Mahabodhi Society)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금도 인도의 여러 도시와 성지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현대 인도불교의 막을 연 1956년의 집단개종은 힌두교의 역할에 대하여 카스트 제도 철폐와 불가촉천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평생을 바쳐 온 암베드카르 박사의 결단에 의한 것이었다.

암베드카르의 사후에도 불교 개종의 물결은 이어져 수백만의 달리트(전 불가촉천민 집단)가 불교로 개종했다. 하지만 암베드카르에 의해 계기가 마련된 인도 불교의 부흥은 지역적으로 마하라슈트라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몇 개 주에 제한되었다. 그리고 불교도들의 출신상으로는 암베드카르의 출신 카스트인 마하르(Mahar) 카스트를 크게 뛰어넘지는 못했다. 인도 불교협회(Buddhist Society of India)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인도의 불교인구는 1천5백6십만. 이들 중 대다수는 마하라슈트라 지방의 마하르 카스트 출신자들이다.

기층민 중심 “권익신장” 귀의 많아 출가자·재가법사도 꾸준히 늘어

그러나 최근 들어 인도 불교의 모습에 큰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바로 불교의 지역적 확산이 그것이다. 북인도의 불교 성지를 중심으로 펼쳐진 꾸준한 포교활동도 요즈음에 그 결실을 맺어, 보드가야 부근에서 개종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북인도 지역으로의 불교 확산은 달리트를 비롯한 하층민들의 권익 신장을 내세운 대중당(Bahujan Samaj Party)의 세력 확대에 어느 정도는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대중당 지도부는 불교의 포교와 개종을 알게 모르게 후원해 왔으며, 대중당의 창립자이며 당수인 칸쉬 램(Kanshi Ram)이 불교로 개종했다는 것은 불교도들 사이에서는 ‘공개된 비밀’이다. 그러나 불교신도가 수적으로 워낙 적은 북인도 지역 중심의 정당인 지라, 공개적인 불교 지지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한편 마하라슈트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불교기반 정당인 공화당은 그 동안 북인도 지역에서는 열세를 면치 못해 왔으며 힌두교 정당의 파상공격에 조직마저 와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 11월 우디프 라즈세를 비롯한 수만명의 집단개종을 촉발 지원하면서 델리와 인근지역에 지지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포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집단 개종 뿐 아니라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출가자의 수도 인도 불교에 서광이 비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지난 9월에 델리에서 25명이 수계식을 갖고 비구로 출가한 것을 비롯하여 인도 각지에서 평생을 불법에 헌신하고자 하는 불자들의 출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개인 형편상 출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법사’가 되는 길이 열려있다. 요즘 들어 재가 법사가 되고자 하는 불자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인도 부녀=이제는 통산된

면면히 이어지는 청정수행

‘중국불교는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거의 쇠퇴했기 때문에 고승은 없을 것이다.’ 한국 불교계의 이러한 추측과는 달리 중국불교계에는 아직 정당한 고승들이 많다. 다만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 옛날 중국의 선사들과 같은 활법(活佛)을 할 수 없을 뿐이다.

중국불교는 문화대혁명(1966-1976)을 겪으면서 많은 고승을 잃었다. 그러다보니 소림사, 법문사, 백마사 등 큰 사찰의 김원(住持)은 대다수가 30-40대 스님이다. 현재 중국 불교를 이끄는 고승들은 대부분 허운 대사의 제자들이다. 문화혁명 기간에 엄청난 탄압을 받았지만 두터행으로 이를 극복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깨달음의 빛을 감추고 세속에 몸을 숨긴 채(和光同塵) 중국 불교의 부흥을 위해 간절한 서원을 세우고 있다.

중국불교와 현대 고승들

수십년째 묵언 ‘자비보살’



■임제선사 방장 유명스님

임제종 제45대 전인(傳人, 종장) 유명(有明) 스님은 항상 온화한 웃음으로 신도들을 맞아 ‘자비보살’로 불리운다. 1916년 하북성 평산현에서 출생, 1923년 7세의 나이로 평산현 암수사로 출가했다. 제방의 선원에서 수십년간 참선한 유명 스님은 일제 선사의 유지가 남아있는 임제선사의 복원봉사에 매진해 왔다. 1989년 본환(本換) 노사로부터 임제종 제45대 전인의 외발을 전수받은 유명 스님은 1990년 임제선사(臨濟禪寺) 방장에 추대됐다. 평생 청빈한 생활과 엄격한 계율을 수지하고, 인욕과 하심을 수행해 온 유명 스님은 수십년간의 묵언 정진으로 유명하다.

불·의학 겸비...제자 1만명



■홍교사 주지 상명 노화상

협서성 홍교사 주지 상명(常明) 노화상은 1916년 협서성 함양에서 출생했다. 1937년 충남신 자죽림(紫竹林)에서 불진(佛進) 노화상을 은사로 출가해 10여년간 불학과 의학을 공부해 비범한 경지를 보였다. 1953년 북경 공제사에서 근대의 고승인 허운 노화상을 참배했으며, 강소성의 고승 레과(萊果) 노화상도 친견해 가르침을 받았다. 세계의 여러 불교국가와 불학 및 문화교류에 나서 국내외의 제자가 속속을 따르며 1만여명에 이른다.

위법망구 허운 도풍 계승



■운문선사 방장 불원스님

허운 대사의 주석처인 운문선사를 지키고 있는 불원(佛源) 화상은 1922년 호남성 익양시에서 태어났다. 17세에 익양 회룡산 누하사에서 출가했으며, 1941년부터 헝양 나한사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불학을 연구했다. 1951년 불운사에서 허운 화상을 친견하고 깊은 가르침을 받았다. 1952년 2월 19일 대웅전에서 왼쪽 무명지를 태워 공양하며, 부모와 스승의 은혜에 보답했다. 잠을 자지 않고 공양을 거르는 등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허운 노화상의 도풍(道風)을 계승, 진작시키고 운문 고찰을 복원을 위해 헌신했다. 1984년부터 광동성불교협회 부회장, 중국불교협회 상무이사를 맡고 있다.

마조선사상 재조명 활발



■보봉사 방장 일성스님

위양종 제 10대 종정인 일성(一誠) 스님은 강서성 운거산 진여선사 및 보봉사 방장이다. 마조 도일 선사의 주석도량인 보봉사에서 마조 선사상의 재조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27년 호남성 망성현에서 출생, 1949년 망성현 세심사에서 출가했다. 1956년 강서성 운거산 진여선사에서 허운 노화상을 모시고 각고의 수행에 매진했다. 1959년 성복 대학으로부터 위양종의 법을 받아 제10대 전인이 되었다. 문해 당시의 고초를 소신(素心)으로 견디며, 불취주아 특경과 참선으로 융합정진한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93년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94년 강서성 불교협회 회장에 추대됐다.

북미 불교회 회장직 맡아



■정토선 상징 관정스님

중국 정토선의 상징인 관정(寬淨) 스님은 1924년 7월 7일 중국 북경성 보전현 상광진 동태로에서 출생했으며, 15세에 허운 대사의 제자가 되었다. 17세에 허운 남화사에서 수계식을 받았고 17세에 운거산에서 허운스님으로부터 정법안장을 계승했다. 1967년부터 6년 반 동안 선정에 틀어 서방정토를 참관했다. 1982년부터 미국에 가서 불교 포교에 매진해 북미불교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명찰협서성 법문사 복원



■법문사 방장 정일스님

1922년 강소성 숙천시에서 출생한 정일(淨一) 스님은 9세에 책을 읽고 15세에 농사 일을 했으며, 19세에 출가했다. 1948년 광동 운문사에서 선종의 태두인 허운 노화상을 3년간 가까이 모셨다. 이때 심지(心地)를 밝혀 선종과 화엄을 가장 존중하며 닦았다. 1987년에 법문사 복원봉사 중 부처님 진신사리가 출현에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본사 증건 봉사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1994년 부처님 진신사리를 태극으로 모셨으며, 1994년 법문사 방장에 추대됐다. 현재 중국불교협회 이사, 협서성불교협회 상무이사를 맡고 있다.

중국 생활불교 보급 앞장



■백림선사 방장 정혜스님

1932년에 출생한 정혜(淨慧) 화상은 3세에 동진 출가했다. 문화대혁명으로 존재위기에 놓였던 중국 불교를 살린 허운 대사의 선농일치(禪農一致) 사상을 이어, 운문종의 13세 종풍을 계승했다. ‘각오인생(覺悟人生), 봉헌인생(奉獻人生)’이란 기치아래 1991년부터 10회째 개최하고 있는 생활선 대회에는 매년 북경대 학생 등 300여명 이상이 참석하고 있다.

개방후 불교세 급신장...대찰 복원불사 ‘바람’

중국불교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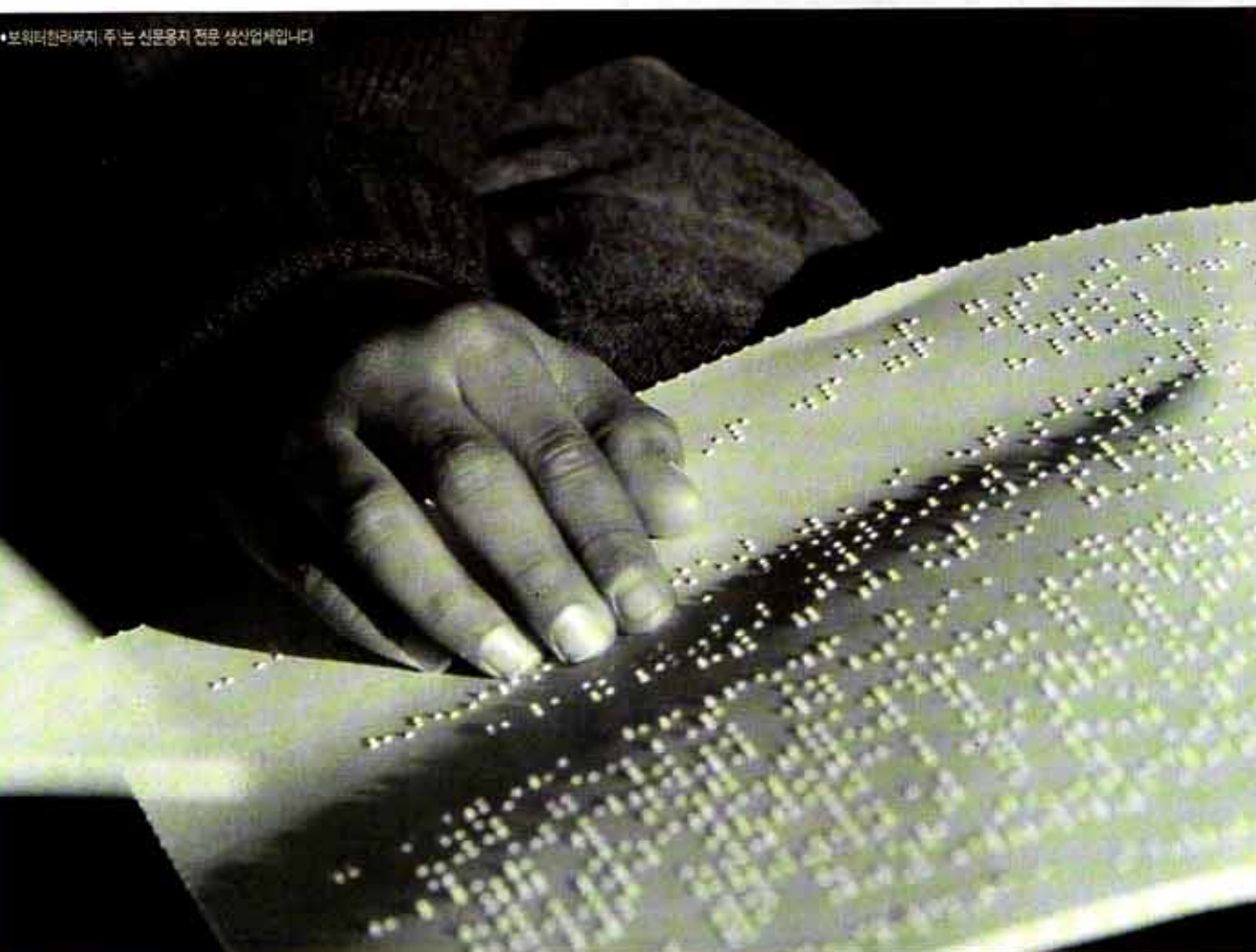
중국 불교는 문화대혁명 기간(1966-1976) 동안 사찰에서의 모든 신앙활동이 금지됐다. 하지만 1978년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되면서 종교신앙의 자유가 회복되기 시작, 그 가운데 전통종교인 불교가 가장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에는 3만여개의 사찰, 25만여명의 스님, 1억3천만여명의 불자가

있다.

현재 중국불교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륙의 불교는 남부가 북부보다, 동부가 중서부보다(티베트지역 제외) 활발하다. 그 중 중남연해지역의 복건 절강 강소성 등 지역이 매우 출성하며, 유명한 대찰이나 명찰들도 대부분 회복 또는 재건되고 있다. 특히 중국 4대 불교 명산지역으로 불리는 오대산 문수보살도량, 아미산 보현보살도량, 보타산 관음보살도량, 구화산 지장보살도량 등을 중심으로 신행이 되살아나고 있다. 곳곳에서 사찰 3만·스님 25만 인재 육성·사회봉사 강조



◀중국허북성백림선사에서 10회째 열리고 있는 ‘생활선대회’. 이 대회에는 매년 수천명의 불교도들이 참가한다. 특히 중국불교협회는 현재 학불학원만도 36곳이나 된다. 김재경 기자



보워터한라의 생활 속 좋은 종이 ①

착한 종이

이 종이에서 그들은 파란 바다 위 하얀 범선을 봅니다. 곳곳이 세상을 살아갈 희망을 봅니다. 앞 못 보는 이에게 눈이 되어주는 착한 종이-보워터한라가 만들고 싶은 좋은 종이입니다. 좋은 종이는 종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담고 기쁨을 담고 생활을 바꿉니다.

보워터漢寧製紙株式會社 BOWATER-HALLA PAPER CO., LTD.

●본사 천안남도 양양읍 삼호면 남천리 188-1 TEL: (041)460-8114 ●서울사무소: 서문시 강남구 대치동 94-1 통우빌딩 TEL: (02)761-1576